

버는 재미 쓰는 재미

김성훈/생명의전화 상담부장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은 부자인데 나라는 가난하다.'라는 이야기였다. 듣고보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부자의 기준척도가 경제력의 어느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잘못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일본의 부의 분배나 중산층을 기준으로—물론 중산층이라는 계층의 구분도 애매모호하지만—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분포, 그리고 절대 빈곤층의 생활상,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도를 판단하여 보면, 우리네 상황을 국민은 잘 살고 나라는 가난하다는 논리는 절대 옳지 않은 것이다. 다만 우리의 현재 소비 성향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면 적절한 표현으로도 받아들여 진다.

외국에서 온 교포나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하다. 이구동성으로 놀라움과 심지어 감탄사를 연발한다. 더우기 아깝지 않게 대접하는 우리네 양속(良俗)을 접하면, 모르긴해도 황송한

마음이 들게다. 더우기 3~40년전의 한국과 비교하면 놀라지 않을 이가 없을 것이다.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한국은 틀린 말이 아니다. 분명 우리는 그때에 비교하여 크게 발전하여 온 것임에 틀림없다. 아시아권의 태국이나 필리핀, 남미의 브라질이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뚜렷히 알 수 있다. 전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들보다 우리가 오히려 형편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를 새삼 깨닫는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여간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절대 빈곤으로 어둡게 사는 이가 적지 않고, 상대적 빈곤 계층도 만만치 않음이지만 여하튼 보편적으로 생활이 넉넉해졌다는 것은 우리를 여유있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고 있다. 여유가 지나쳐 물의를 빚는 모습이 흔해져 가지만….

'잘 살아 보세'의 구호에 걸맞게 허리 졸라매고 근검과 절약으로, 근면과 성실로 이루어 놓은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그



래서 더욱 값있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잘 살아 보세가 지나쳐 우리에게 극단적인 행위의 표출 양상의 근거를 만들어 준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다 시말해 벌줄만 알았지 쓸줄 몰라 '버는 재미'에만 연연한 사람과 별고 보니 그동안의 즐라매었던 허리뿐만이 아니라 세월도 허무해, 재미(?)를 찾아 이젠 '쓰는 재미'에 과몰혀 버린 사람들만을 양산해 낸 듯하다. 전제로 말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범주에 있다는 말이 아니겠고, 다만 그 극단적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점차 한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벌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조선말엽부터 시작된 근원적 빈곤은 물론 우리 선조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에서 출발했지만, 일제하의 수탈정책으로 극에 달했고, 6·25의 폐허 속에 남은 것이 전혀 없는 시절을 거처왔다. 불과 백년도 되지 않는 세월동안에 완전히 제로의 상태에 던져져 버렸던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더구나 좁은 땅에 늘어난 인구에, 땅속에 있는 자원도 거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다. 우리는 그 없는 때에, 생기면 입에 풀칠하기 바쁜 때에도 모으기 시작했다. 나의 가난이 대대손손 물려줄 유산적 가치가 아니라 치부였기에, 자식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모아서 이런 가난이란 몹쓸병에 걸리지 말라고 죽을 힘을 다해 모았다.

누구나 그랬다. 정부에서도 재벌을 만들어 자본과 기술을 모으게 도왔다. 그래야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어 허리라도 즐라매 건덕지라도 만들어지게 되겠기에, 그러한 덕분에 불과 삼십년 뒤엔 어엿한 우리의 모습이 탄생되었다. 그동안 모을 줄 밖에 몰랐고, 모으다 보니 재미가 있어 어떻게 하면 더많이 더빨리 모을까의 혈안이 될 지경이었지만, 눈덩이 불어나듯 커가는 재산에 그저 감격할만큼 재미가 있었다.

버는 재미가 재미중 으뜸이었다. 물론 생산성 노동의 대가로는 어렵없었고, 투기 등의 속도전을 통한 대가였겠지만.

“ 재화의 가치는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 재화는 나누기 위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와 ‘쓰는 재미’에 몰든 그들은 이미 불의의 선에 서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

어떤 이는 지금도 모을 줄 밖에 모른다. 얼마나 가난했던가, 그러니 불어나는 재산증식의 기쁨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이는 과거의 삶이, 즉 모으기만 했던 삶을 뒤돌아 보며 이제는 보상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너무나 지긋지긋한 가난의 세월이었기에 이제는 좀 풍성하게 살고 싶어졌다. 당연히 그러리라.

그래서 커다란 집, 아니 궁전도 만들고 고급 외제차도 한두대 사고 콘도나 별장도 마련하고, 골프 회원에 헬스클럽 회원권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고급 요정이나 룸싸롱의 은밀한 즐거움이나, 고가의 외제품들도 치장하는 멋도 창조(?)해 내었다. 그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꿈도 못 꿰뚫었던 일이 아니었던가, 역시 사람은 쓸 줄 알아야 해.

버는 재미는 궁상맞지만 쓰는 재미는

사람을 멋과 품위를 갖게 해주니 말아야 할 것이다. 쓸수록 자신은 멋과 품위를 갖춘 사람으로 착각하겠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버는 재미와 쓰는 재미로 세월 보내는 이들의 소식을 T.V와 신문에서 매일 대하고 산다. 재미있게도 그 버는 재미와 쓰는 재미를 삶의 목표로 삼아 아직도 투기에 혈안이 되었거나 도박 등의 일확천금을 향한 발버둥치는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모으기만을 강조했지, 그것도 어떻게 모으느냐의 도덕적 가치보다는 어떻게든 모아야 한다는 수단적 가치만을 합창했을 뿐이지, 쓰고 사는 삶은 가르치지 않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모은 것, 내가 쓰는데 무얼 그리 말이 많냐고 하겠지만 재화의 가치는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해 재화는 나누기 위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와 ‘쓰는 재미’에 몰든 그들은 이미 불의의 선에 서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누는 삶을 유난히 부르짖는 시절이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곧 우리사회는 온통 불의의 사회로 전락되어 아무 재미없는, 아니 무섭고 두려운 사회로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 징후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나누는 삶을 지향해야 살 수 있다.

나누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비시지로 결핵예방 검진으로 결핵퇴치